

종교교육학연구 제14권. pp.117~13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현대 한국 종교의 영성 수련에 대한 고찰

— 원불교의 ‘정신수양’을 중심으로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약》

인간 삶을 편하게 해 준다는 산업화, 정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또 다른 한 편으로 인간성을 상실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면서 심신이 황폐화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 조건 속에서 원초적 영성에 대한 갈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대안 영성의 제발과 수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원불교의 영성과 영성수련에 주목하게 된다. 원불교는 구한말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여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한 시기를 지내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그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격동기 한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그 무엇인가가, 즉 현대 한국인들에게 들어맞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추론을 갖게 한다.

원불교의 영성은 개인적 수련과 사회적 실천을 균형 있게 체득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는 삼학의 병진이라고 정리된다. 그 중에서도 수련의 요체로서 정신수양은 원불교의 실천적 영성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의 종교들은 이 점에서 원불교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한 세기 전에 이루어진 종교 창시자의 깨달음이 현대 한국인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맥락에 맞추는 작업[dynamic equivalence]이나 해석학적 반성이 요청된다.

※ 핵심 주제어 : 현대 사회, 대안 영성, 원불교, 삼학, 정신수양, 영성수련, 해석학적 반성.

I. 서론: 현대 사회와 영성개발이라는 과제

종교전문가들은, 그들이 어느 종교에 소속되어 있던지 간에, 앞으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야말로 바로 시대에 맞는 '영성'의 개발이라고 한 목소리로 진단하고 있다. 신종교와 기성종교를 막론하고 새로운 영성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영향하에서 인간의 존재양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정신 문화가 보여주고 있는 다각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사탄주의, 뉴에이지, 반향, 마법, 거짓 메시아로 점철된 '저항문화'가 등장했는가 하면 술, 마약, 섹스, 허무, 자살로 범벅이 된 '도피문화'도 제 철을 만난 듯 퍼져 나갔다. 나아가 '스포츠에 미쳐라, 음악에 미쳐라, 컴퓨터 게임에 빠져라, 폭력을 즐겨라, 황홀한 섹스를 즐겨라'는 구호를 내건 '광란의 문화'가 청소년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뒤흔들고 있다.”¹⁾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이 엄청난 이상 기류를 타고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사주, 점, 운명... 등의 변종 종교문화가... 첨단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의 안방까지 버젓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통 종교계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음을 관심 있는 이들이 지적해 온지 오래다.....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제도종교의 약화와 신영성 운동의 확산'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종교'(the invisible religion)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즉, 현대인은... 개인적인 안전이나 평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보이지 않는 종교' 또는 대체종교인 기공, 단전호흡... 등에 경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종교성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사회, 윤리 규범을 소홀히 여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심신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²⁾

1) 차동엽, 「대안 영성」, 《가톨릭신문》 2002년 1월 20일자, 8쪽.

2) 같은 곳.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한국 사회가 대면해야 할 첫 째 과제가 바로 '대안 영성'의 마련이다. 앞에서 인용한대로, 우려할 만한 영적 현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현대인의 욕구와 영적 갈증을 한국의 종교인들은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성 또는 깨달음을 체험함으로써 현실의 불안을 떨치고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해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성 프로그램을 한국의 종교들은 서둘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옥석을 가려서 활용할 줄 아는 식별력과 아울러, 한국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들이 역사 속에서 쌓아온 다양한 영성의 보고를 활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새 천년기를 맞이한 겨레와 누리의 온전한 해방과 자유라는 사명을 실현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성의 출현을 간절히 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러한 문제의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들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바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종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영성과 영성수련 분야에서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교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또 그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원불교의 영성과 영성수련에 주목하였다. 굳이 원불교를 주목한 이유는, 구한말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여 격동의 근대화 기간을 통과하면서 건실한 성장을 통하여 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 정신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아직까지 원불교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문외한에 가깝다. 다만 종교간의 만남과 대화, 실질적인 교류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으로서의 '융용종교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종교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에 힘입어 이 소고를 작성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II. 원불교의 영성: 개인적 수련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

원불교 영성의 특징은 한 마디로 ‘삼학병진’(三學並進)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3분야의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다.³⁾ 즉 언제 어디서나 수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되, 수행과 이론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균형과 병행을 이루라는 것이 애초부터 원불교 영성의 특징을 이루어온다고 보인다. 인간 됨됨이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배우는 세 가지의 수행법이 바로 ‘3학’(三學)이다. 이 세 가지의 배움은 원불교의 기본교리인 ‘일원상’(一圓相) 진리⁴⁾와 통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의 길이라는 것이다.⁵⁾ 이러한 절대진리인 일원상을 수행의 표준으로 하여, 본래 완전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자는 ‘복성(復性) 사상’을 원불교 영성의 근본으로 볼 수 있겠다.⁶⁾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圓滿 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 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⁷⁾ 이하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3학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정신수양

정신수양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욕심과 번민을 없애고 온전한 ‘정신’의 자주력을 얻기 위한 공부의 길이다. 원불교 경전인 『정전』(正典)에서는 ‘정신수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

3)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서울: 집문당, 1989), 291쪽.

4) 유병덕, 「일원상의 진리」, 『원불교와 한국 사회』(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8).

5) 유성태, 「원불교와 동양사상」(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15-51쪽;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 5, 『한국의 신종교 문화』(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315-332쪽.

6) 김낙필, 「원불교의 인간이해」, 『종교와 원불교』(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1).

7) 『정전』, 제 2 교의편, 제 1장 일원상, 제 3절 일원상의 수행. 이하에 인용하는 원불교 교전(『정전』과 『대종경』)은 다음 책에서 인용함. 원불교정화사 편, 『원불교전서』(익산: 원불교중앙총부교정원, 7판: 1981).

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라”⁸⁾고 말한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수행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정신수양은 정신통일을 위한 공부요, 본래 내 마음이 그 곳에 있던 ‘마음 자리’를 회복하는 수행 방법이다.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한 마음의 흔적도 드러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⁹⁾

구체적으로 정신수양에 해당되는 훈련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¹⁰⁾ 즉 가만히 있을 때에는 염불, 좌선 등의 수련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아보는 분별성을 기르고 쓸 데 없는 일에 매달리는 주착심을 없이하여 일정심(一定心)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움직일 때에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을 갖추는 것, 즉 그일 그 일에 일심(一心)을 집중하는 것이다:

“염불은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¹¹⁾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왼쪽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쪽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패하리라.”¹²⁾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용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세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¹³⁾

8)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1절 정신수양.

9) 김낙필, 「은사상의 생철학적 조명」, 이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9, 1985.

10) 한기두, 「원불교 선수행의 특징에 대한 연구」,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2, 1997.

11) 『정전』, 제 3 수행편, 제 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 1절 정기훈련법.

12) 『정전』, 제 3 수행편, 제 4장 좌선법, 1. 좌선의 요지.

“네가 그 때 약을 달이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 때의 네 책임이니 성심 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의 요긴한 방법이니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백 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¹⁴⁾

불교에서 좌선을 하는 목적은 선정(禪定)에 들어 위대한 지혜(prajna)를 깨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불 때에, 원불교에서 정신수양을 하는 목적은 정신의 자주력(自主力)을 얻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 “천지 만엽으로 벌여 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¹⁵⁾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제 욕심만 채우려하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욕심을 제거하려는 것이 정신수양의 목적이다.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파멸되며, 정신이 쇠약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오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근본에서부터 바로 잡자는 것이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정신수양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불교의 정신수양은 염불과 좌선 등으로 큰 정력(定力)을 얻음과 아울러 그렇게 얻은 힘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그 일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가 중심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회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¹⁶⁾ 이렇게 불 때에, 원불교 정신 수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움직이고 있을 때의 수양이 중심이 된다. 즉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과도한 욕심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켜 안정된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감정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정신을 수양해서 옳은 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13) 『대중경』, 제 3 수행품, 2.

14) 『대중경』, 제 3 수행품, 17.

15) 같은 곳.

16) 『정전』, 제 3 수행편, 제 13장 최초 법어, 1. 수신의 요법.

17) 한종만, 「원불교 삼학 수행과 사회생활」, 이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제20호, 1996.12, 125-148쪽.

2. 사리연구

사리연구는 원불교의 기본원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는 공부와 실생활의 옳고 그름을 알아 가는 공부의 길이다. 『정전』에서는 ‘사리연구’를 다음과 같이 풀어놓고 있다: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룸이요, 리(理)라 함은 천조(天造)의 대소유무를 이룸이요.....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룸이니라.”¹⁸⁾ 즉 크게는 우주의 이치로부터 작게는 인간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이르기까지 막힘 없이 모두 알도록 연구의 역량을 키우는 일로 이해된다. 성품을 사리연구의 면으로 보면 대소유무(大小有無)의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시비이해(是非利害)의 일에도 걸림이 없이 아는 지극히 밝은 반야(般若 prajna)의 경지이다. 원불교의 사리연구의 목적은 의심나는 일들을 다듬고 성리를 연마해서, 진리의 본성을 알아보는, 견성(見性)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치는 것만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시비이해의 일을 밝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치의 대소 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다.”¹⁹⁾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 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라.”²⁰⁾

결국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친다는 것도 사실과 허위를 분간해서 자신과 가정이 파멸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달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²¹⁾

사리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리의 연마와 의두(疑頭) 연마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치며 그 일 그 일에서 알음알이를 구하여 옳은 일과 그른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연마하는 일이다. 특히 원불교의 성리 연마는 근본을 깨치면서도 현실의 이치까지를 깨치는 것이 특성인 것이다.

18)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2절 사리연구.

19)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2절 사리연구, 2. 사리연구의 목적.

20) 같은 곳.

21) 같은 곳.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話頭)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밝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²²⁾

“대(大)를 나누어 삼라 만상 형형 색색의 소(小)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 색색으로 벌여 있는 소(小)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大)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體)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用)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소와 유의 이치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²³⁾

이렇게 성리 연마와 의두 연마는 실생활에서 활동을 할 때에 그 일 그 일에서 이치를 깨치도록 연마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치와 일을 깨치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의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원불교 사리연구의 요체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²⁴⁾

그러나 사리연구란 대소 유무의 이치를 깨치는 것만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대소 유무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시비 이해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의 범위를 사회 생활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을 통하여 우주의 진리를 깨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깨우친 진리를 사회 생활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야말로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주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주의 진리를 깨쳐서 생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²⁵⁾

22) 「정전」, 제 3 수행편, 제 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 1절 정기훈련법.

23) 「대종경」, 제 7 성리품, 27.

24) 「정전」, 제 3 수행편, 제 13장 최초법어, 1. 수신 의 요법.

25) 한중만, 앞의 글.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에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 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르고 해 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 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²⁶⁾

3. 작업취사

작업취사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력을 갖춘 성품을 얻으려는 공부의 길이다.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면이비설신의(眠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²⁷⁾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원만하고 정정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²⁸⁾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냄새를 바르게 맡고,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야말로 일원상의 진리를 사회 생활에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작업취사의 핵심은 온 몸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실행력은 바로 사회를 바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리 정신수양을 잘 하여 수양할 능력을 얻고 사리연구를 잘 하여 연구할 능력을 갖추었다라도 실생활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그러한 수양과 연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실천면에서 수행의 효력을 얻기 위하여 정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불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는 실천적 능력의 계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선을 실행하여 함께 올바르게 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어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어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 오자는 것이니라.”²⁹⁾ 정의는 죽기로서 실

26) 『대종경』, 제 3 수행품, 23.

27)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3절 작업취사.

28) 『정전』, 제 2 교의편, 제 1장 일원상, 제 5절 일원상 법어.

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아니하는 실행공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작업취사는 결국 철저히 불의를 제거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행해서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 할 것이요.”³⁰⁾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함과 아울러 사회의 불의를 제거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활동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일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작업취사의 요점이다. 그러므로 작업취사 자체가 바로 올바른 사회 생활이다: “응용할 때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知行)을 같이 할 것이니라.”³¹⁾ 사회 생활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늘 정의를 행하도록 집중할 것을 소태산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일은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여도 때와 장소에 맞게, 모든 일을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 인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세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³²⁾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수행은 따로 따로 떼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1891-1943)이 비유해서 말하듯이, “쇠스랑의 세 발처럼”³³⁾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지닌 성품은 원래 절대적 완전성을 갖추었으므로, 이러한 완전성을 다시 회복하는 복성(復性) 사상이 바로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삼학 수행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 하에서 분명하면서도 고요한 인간의 본래 성품을 회복하고 사회생활

29)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3절 작업취사.

30) 『정전』, 제 3 수행편, 제 12장 술성요론.

31) 『정전』, 제 3 수행편, 제 13장 최초 법어, 1. 수신의 요법.

32) 『대중경』, 제 3 수행품, 2.

33) 『대중경』, 제 2 교의품, 21.

에서 자주력[주체성]을 획득하는 목적을 가진 정신수양, 우주의 이치를 깨우침과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모든 일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사리연구,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작업취사가 동시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불교 영성의 요체로 판단된다.

Ⅲ. 영성수련으로서의 정신수양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원불교 영성의 체계적 수련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정신 수양’을 선택하여, 그러한 수련이 지향하는 목적과 수련의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 정신수양의 목적

정신수양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선 ‘정정(定靜)의 체득(體得)’, 즉 진리를 온 몸으로 깨달아 흔들림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련의 결과 얻게 되는 최고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정정’이다. 진리에 내 마음의 뿌리를 박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소태산은 정정의 수련을 내외로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내외 양면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무릇, 사람에게에는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定靜)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에 반드시 대의(大義)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녕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魔)의 근원을 없이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에 염불과 좌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³⁵⁾

34) 김순임, 「원불교 ‘정신수양’의 연구」, 이리: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제1권, 1996.

외정정은 유사시의 공부로서 이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취하고 버리는 일을 하여 정신을 가라앉히는 수행이라고 보았으며, 내정정은 무사시의 공부로서 염불과 좌선 등의 방법으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잠재워 온전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소태산의 뒤를 이어 원불교를 이끌었던 정산 송규(1900-1961)는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염불, 좌선, 무시선, 무처선을 들고 있다.³⁵⁾ 이 중에서도 특히 ‘무시선’이란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³⁷⁾고 하였다.

또한 일심은 정정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곧 온전한 마음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정신수양을 말할 때 무사시에는 염불과 좌선을 하고 유사시에는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양성하라고 한다. 곧 정신수양은 유사시나 무사시나 일심을 양성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산은 과거 불교의 삼학과 원불교의 삼학을 비교하여, “과거에도 삼학이 있었으나 계정혜(戒定慧)와 우리 삼학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계(戒)는 계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지계에 치중하셨지마는 취사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사케 하는 요긴한 공부며, 혜(慧)도 자성에서 발하는 혜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마는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알음알이를 얻는 공부며, 정(定)도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마는 수양은 동정간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³⁸⁾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언급이야말로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불교 정신수양의 지향점은 바로 이렇게 내외 양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심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수양을 설명하는 중에 ‘정의 구현’이라는 말은 주로 유사시, 움직일 때에, 외적 공부의 측면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일심이 양성되면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정의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정신수양을 정의로 설명한 최초의 문헌은

35) 『대종경』, 제 3 수행품, 19.

36) 원불교정화사 편, 『정산종사법어』 (이리: 원불교출판사, 1978), (이하: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 6 경의편, 15.

37) 『정진』, 제 3 수행편, 제 7장 무시선법.

38) 『정산종사법어』, 제 2부, 법어, 제 6 경의편, 13.

소태산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 시국을 둘러보고 최초의 감상을 언급하였다는 ‘최초법어’로부터이다.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회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³⁹⁾

2. 정신수양의 방법

원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방법인 삼학에서 한 분야인 정신수양은 나머지 사리 연구 작업취사와 동떨어져서 별도로 진행되는 독단적 공부법이 아니라 언제나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히 수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다음 인용문에서 매우 잘 알아 볼 수 있다.

“우리 공부의 요도 삼학(三學)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연구·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 쌍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알음알이·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本)과 말(末)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⁴⁰⁾

39) 『정전』, 제 3 수행편, 제 13장 최초법어, 1. 수신(修身)의 요법.

40) 『대종경』, 제 2 교의품, 18.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⁴¹⁾

“수양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염불과 좌선과 무시선·무처선이 있으나, 그것들로 하여금 진정 참된 수양으로 발전하게 해주는 데에는 연구와 취사가 동반되어 유기적으로 서로 옹하고 도와야 한다고 정산은 말한다. “수양의 방법은 염불과 좌선과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연구의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의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니라.”⁴²⁾

영육 쌍전은 원불교 교리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불교의 정신수양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수련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고 보인다.⁴³⁾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⁴⁴⁾이라고 하였다. 소태산의 좌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원불교 수양법이 바로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공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선의 방법으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앉는 자세와 숨쉬는 방법 등을 명시하면서 조신(調身)과 조식(調息)과 조심(調心)의 삼 단계 조화법을 언급하고 있다.⁴⁵⁾ 특히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다는 측면에서 좌선의 방법을 살펴볼 때 조신과 조심 사이에 조식이 있다. 즉, 심신의 조화는 호흡법을 통하여 달성된다는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러한 좌선의 방법에 이어 좌선의 이익을 다루는 조항에서

41) 『정전』, 제 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3절 작업취사, 2. 작업취사의 목적.

42) 『정산종사법어』, 제 2부 법어, 제 6 경의편, 15.

43) 김순임, 앞의 글.

44) 『정전』, 제 3 수행편, 제 4장 좌선법, 1. 좌선의 요지.

45) 『정전』, 제 3 수행편, 제 4장 좌선법, 2. 좌선의 방법.

도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고... 병고가 감소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생겨나며, ...극락 수용하고, 생사에 자유를 얻는 것”⁴⁶⁾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닦은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들을 열 가지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소태산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수련을 강조하여마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안팎으로 함께 하는 수양을 다음과 같이 군인과 수도자의 실감나는 비유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 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氣質)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心性)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不動心)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5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魔軍)을 항복 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지의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⁴⁷⁾

원불교의 정신수양은 내적 심성상의 수련과 외적 환경상의 수련을 동시에 말한다. 안으로 분별과 주착을 끊는 공부는 내적 수련이요, 밖으로 산란한 경계에 부동함은 외적 수련이다. 또한 무시선법에서도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라”⁴⁸⁾고 하였던 바, 이러한 설명에서도 내와 외를 동시에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은 서로 근본이 되고 서로 쓰임이 되어 어느 한 편에만 치중하여 닦으면 원만한 수행이 되지 못하므로 내외를 아울러 진행하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영성수련의 핵심으로서 정신수양의 특색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원불교 정신수양의 방법으로는 ‘동정일여’(動靜一如)가 있다.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한결같이 수행을 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수행법 역시 ‘병행 병진’이라는 원불교적 영성수련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46) 『정전』, 제 3 수행편, 제 4장 좌선법, 3. 좌선의 공덕: 10개 항.

47) 『대종경』, 제 3 수행품, 16.

48) 『정전』, 제3 수행편, 제 7장 무시선법.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련법은 동·정 중 어느 한 편만을 택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나아가 동·정이 합일하여 그 분별 조차 사라진 한 가지의 수련법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동·정의 구별이 따로 없는 수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하여 소태산은 피경(避境), 무심(無心), 일심(一心), 선정(禪定)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⁴⁹⁾ 다시 말하면, 움직일 때의 수련 방법은 피경, 무심, 일심을 양성하는 일이며, 가만히 있을 때의 수련 방법은 선정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정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서로 간에 기초와 쓰임을 이루게 되면, 마침내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수양의 경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수양의 이러한 경지를 직접적으로 기술한 표현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수양은 동정간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⁵⁰⁾라는 말이다. 참된 수양은 동할 때나 정할 때에나 일심을 양성하여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산은 일체 상대적 대극의 합일성을 강조하여 “정(定)을 쌓되 동정(動靜)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혜(慧)를 닦되 지우(智愚)에 집착 않는 혜를 닦으며, 계(戒)를 지키되 선악(善惡)에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⁵¹⁾고 하기에 이른다. 그리될 때 마침내 마음의 자주력을 얻어 수양력을 얻게 되며⁵²⁾ 자성의 혜광이 나타나서 극락을 수용하고 생사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⁵³⁾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원불교 정신수양의 목적은 정정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이며, 일심을 양성하는 수양이며, 실생활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상에 보이는 원불교 영성수련으로서 정신수양의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정신수양은 사리연구, 작업취사와 함께 삼학이 아울러 행해져야 하는 병진적 수행법이고, 또한 정신수양은 몸과 마음을 겸하여 닦는 수련법이며, 안팎을 함께 닦는 공부법이며, 동정간을 서로 함께 닦는 수행 방법이라고 말이다.

49) 『대종경』, 제 3 수행품, 2.

50) 『정산종사법어』, 제 2부 법어, 제 6 경의편, 13.

51) 『정산종사법어』, 제 2부 법어, 제 7 권도편, 52.

52) 『정전』, 제2 교의편, 제 4장 삼학, 제 1절 정신 수양, 3. 정신 수양의 결과.

53) 『정전』, 제3 수행편, 제 4장 좌선법, 3. 좌선의 공덕.

IV. 결론: 현대 사회를 위한 실천적 영성의 계발과 수련

세계적인 종교학자이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 하비 콕스는 얼마 전 『영성·음악·여성』⁵⁴⁾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는 전세계적으로 영성과 영적 체험을 주목하는 문명의 일대 전환기이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21세기의 종교들이 경직된 형태의 교리적 지식을 위주로 하는 종교로 남거나, 근엄한 도덕주의를 앞세우는 종교가 되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영성을 다루는 종교 곧 영성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증유의 전환기에 처한 종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원초적 영성에 주목하게 하고, 현대인의 영적 갈증과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는 영성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근대 이후 인간들의 가치관을 지배해온 독단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깔려 있다. 그래서 탈근대주의적 조류에 따라 그는 수학적 이성, 기술적 합리성의 일방적인 횡포에 반기를 든다. 그 대신 그는 인간이 지닌 상상력, 직관력, 초월에 대한 경험, 생명의 유기적 연대성 등 한 마디로 영성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종교가 진정한 초월 경험 내지 영적 경험, 말을 바꾸어 거듭남의 체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종교는 역동적인 모양새를 상실하고 거죽만 남은 흉한 몰골로 퇴락하고 만다는 점을 적시한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특정 사회의 한 가지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거나 물화(reification)하고 만다는 것이다.

또, 현대의 종교성에서는 이성적 말씀만이 아니라 감성적 음악이 강조되며, 직선적이고 경쟁적 사고 방식이나 위계 질서를 앞세우는 남성 위주의 생각 또는 인과율적 사고를 넘어서서, 순환적 사고방식 내지는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체적인 여성적 사고가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서 영성을 강조하는 현대인의 종교는 직감적 감성 능력과 유기체적 온 생명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몸의 체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원불교의 영성수련이 이상에 언급한 현대적 영성의 요구에 시사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서론에서 지적한 ‘대안 영성’에 대한

54) 하비 콕스, 유지황 역, 『영성·음악·여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 (서울: 동연, 1996).

요구, 그리고 하비 콕스가 지적하는 감성적 능력을 계발하는 종교 영성의 필요와 관련하여 원불교 영성 수련의 요체로 파악되는 ‘정신수양’은 미증유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갈 길을 찾는 한국의 종교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기술 산업사회의 급박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특히 지난 한 세대 동안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온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성 상실의 위험성에 누구보다도 더 노출되어 있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최근 대중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바다로 산으로 요란한 바캉스 행렬을 보여주던 한국 도시인들의 휴가 문화가 이제 고요한 산사(山寺)나 종교들마다 제공하는 수련원에서의 심신 수련 또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참여에 가담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보더라도 21세기 한국 종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대안 영성의 계발 여부라는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절실한 요구에 얼마나 진정으로(authentically) 부응하는가에 앞으로 그 종교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그러한 갈망이 더욱 강렬하다고 여겨지는 현대 한국인들의 요구에 한국의 종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 신종교의 경우를 일례로 든다면, 1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종교 창시자의 사고 방식이나, 용어 등을 아무런 되새김 없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무런 현대화 작업이 없이 옛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사용한다던가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교들이 저마다 지닌 보석과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가다듬고, 현대인들의 사고나 표현 방식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론적 교리의 정립이 되었든지 영성적 수련의 계발이 되었든지 막론하고 소위 ‘해석학적 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정전」

「정산종사법어」

「대종경」

김낙필, 「은사상의 생철학적 조명」, 이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9, 1985.

_____, 「원불교의 인간이해」, 「종교와 원불교」,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1.

김순임, 「원불교 '정신수양'의 연구」, 이리: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제1권, 1996.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유병덕, 「일원상의 진리」, 「원불교와 한국 사회」,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8.

유성태, 「원불교와 동양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차동엽, 「대안 영성」, 《가톨릭신문》, 2002년 1월 20일자 8쪽.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 5, 「한국의 신종교 문화」,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하비 콕스, 유지황 역, 「영성·음악·여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 서울: 동연, 1996.

한기두, 「원불교 선수행의 특징에 대한 연구」, 이리: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2, 1997.

한종만, 「원불교 삼학 수행과 사회생활」, 이리: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제20호, 1996.

원불교정화사 편, 「원불교전서」, 이리: 원불교중앙총부교정원, 7판: 1981.

_____, 「정산종사법어」, 이리: 원불교출판사, 1978.

Spiritual Training in Modern Korean Religion

— In View of '*jeongsinsuyang*' of the Won-Buddhism

Park, Il-you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In rapidly industrialized society, the Korean people is living in the profound danger of dehumanization. So they are looking for an alternative spirituality, which is able to cure the wounded mind of the modern human being.

Won-Buddhism was found at the end of the Joseon-dynasty. That was really uncertain and unstable period. but during this difficult time Won-Buddhism has made a surprising development. Then there must be a certain reason. I suppose, it is the very suitable spirituality of the Won-Buddhism that attracts the Korean people.

Therefore my research is focused on the spirituality and spiritual training of the Won-Buddhism. The core spirituality and spiritual training of the Won-Buddhism is, in my opinion, balanced training of personal spirituality and social practice. This kind of balanced spirituality is named '*samhak*'(threefold learning) and its fundamental is '*jeongsinsuyang*'(training of the mind).

For the new millennium and for the 21st century but Korean religions, Won-Buddhism included, need to be renewed for their new mission, namely to create an alternative spirituality for modern mankind. Korean religions need at this moment dynamic equivalence and hermeneutic renewal.

Key words : industrialized society, alternative spirituality, Won-Buddhism, *samhak* (threefold learning), *jeongsinsuyang*(training of the mind), spiritual training, hermeneutic renewal.